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11

리코더(Recorder)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연재 목차

- 1편. 바이올린
- 2편. 비올라
- 3편. 첼로
- 4편. 더블 베이스
- 5편. 하프
- 6편. 플루트
- 7편. 오보에
- 8편. 클라리넷
- 9편. 바순
- 10편. 색소폰
- 11편. 리코더**
- 12편. 트럼펫

이 글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를 매회 하나씩 소개한다. 악기 소개는 개요, 구조, 종류, 뒷이야기 등의 열개로 기술되며 방송 현업 하시는 분에게 악기에 대한 이해와 교양으로 써 상식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리코더Recorder를 들어가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플로렌스Florence Foster Jenkins’를 보면 프로라고 보기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음치 소프라노 성악가가 등장한다. 그녀는 원래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피아노 연주를 잘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부모의 반대로 음악의 길을 걷지 못했다. 부모의 사후 유산으로 인해 막대한 부를 거머쥔 그녀는 클래식 음악계에 후원을 하는 등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으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특히 성악을 사랑하였다. 성악 레슨까지 받아 가면서 프로 가수로 활동하게 되지만 역사상 최악의 성악가로 평가받는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카네기 홀에서의 그녀의 역사적인 리사이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여성 음치 성악가처럼 한때 센세이션했던 유튜브의 인기영상에서 꼭 끼는 셔츠에 가슴과 배를 풀어헤치고 리코더로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을 찾은 뽕사리(squeak)를 내가면서 연주하는 최악의 뮤지션(Matt Mulholland)이 있

었다. 당시 영상을 처음 접한 이들은 예술혼을 불태우며(?) 처절하게 연주하는 그의 모습에 다들 배꼽 잡고 웃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뮤지션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리코더라는 악기는 우리에게도 연주도 쉽고 꽤나 친숙한 악기이다.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누구나 접하는 국민 악기임이 틀림없다. 필자가 초등(국민)학교 다니던 시절(1970년대)에는 ‘피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리코더의 개요

색소폰은 비록 금속 소재로 제작되었지만 마우스피스에 리드를 부착한 점에서 목관악기에 분류된다. 색소폰처럼 오케스트라에는 정식으로 속하지는 않지만, 목관악기인 리코더가 있다. 이 악기는 플루트의 사촌으로 플루트가 등장한 1700년대 중반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다. 리코더는 크나큰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오케스트라의 정규 편성 악기는 아닌 점에서 색소폰과 동병상련인 악기이다. 이 악기는 고대부터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악기이며 플루트가



영화 플로렌스 /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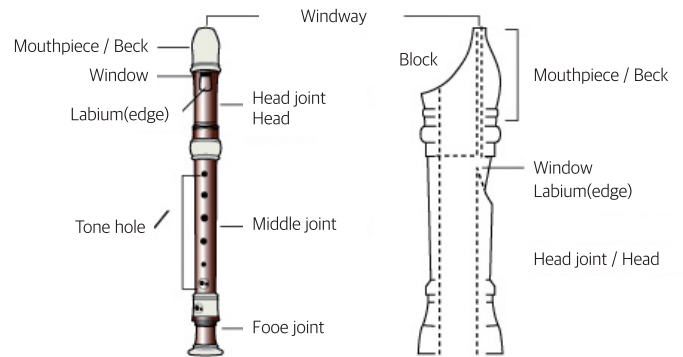
Matt Mulholland / 유튜브

개발되기 전까지는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었다. 리코더의 황금시대는 바로크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에는 텔레만^{Telemann}, 바흐^{Bach}, 헨델^{Händel}, 비발디^{Vivaldi} 등의 대가들이 리코더를 위한 많은 명곡을 남겼다. 또한 악기가 세 개의 관으로 분해할 수 있게 개량되어 조율이 가능해지면서 성능도 좋아졌다. 음역에 따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레이트베이스가 있으며 ‘콘소트^{Consort}’라고 하여 같은 종류 악기끼리 모여서 연주하는 연주회가 성행하였고 독주 악기로서 알토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 대편성의 오케스트라가 유행하게 되면서 음폭과 음량이 작은 이 악기는 화려한 고음과 넓은 음폭의 플루트에 밀려서 정규 편성에 빠지게 됨과 동시에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영국의 ‘아놀드 돌메취^{Arnold}

Dolmetsch’에 의해 거의 소멸하였던 리코더에 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유럽은 물론 세계 곳곳으로 알려지게 되며 교육용 및 연주용 악기로 부활하였다.

리코더의 구조

리코더는 처음부터 초보자도 쉽게 소리를 낼 수 있고 운지가 쉽다는 점에서 여타의 까다로운 목관·금관 악기와는 그 결이 다르다. 하지만 프로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선입견과는 달리 연주하기에 꽤 어려운 악기이다. 리코더의 발생 원리는 취구를 통해 블록^{Block}과 윗관^{Head joint} 사이의 얇은 공간(윈드웨이^{Windway})으로 바람을 불어 넣으면 라비움^{Labium}을 통해 악기의 안과 밖으로 나누어지면서 소리를 발생한다. 리코더의 재질은 플라스틱, 나무, 상아(최근에는 제작 금지됨) 등으로 만들며 재질마다 음질 특성이 다른데 나무로 만든 것이 가장 목가적이고 음색이 포근하다. 리코더는 앞에 7개, 뒤에 1개로 총 8개의 톤홀^{Tone Hole}을 가지고, 개량형은 한,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개량이 진행 중인 악기이다.



리코더의 구조 / yamaha.com

리코더의 종류

리코더는 크기와 음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소프라니노^{Sopranino} 리코더

고음악기인 소프라노 리코더보다 더 높은 음을 내는 악기이다. 약 24cm 전후이고 F조 리코더이다.

소프라노 Soprano 리코더

독주, 앙상블, 합주에서 주 멜로디악기로 활동하며 길이는 약 32cm 전후이고 C조 리코더이다.

알토 Alto 리코더

F조 리코더로서 거의 모든 독주곡이 알토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이는 약 48cm 전후이다.

테너 Tenor 리코더

주로 앙상블 및 합주에서 사용되는 악기로서 C조 리코더이다. 물론 독주곡도 있지만, 앙상블에서 많이 사용된다. 악기 사이즈가 커서 8번 구멍의 위치에 키가 달려 운지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며 길이는 약 64cm 전후이다.

베이스 Bass 리코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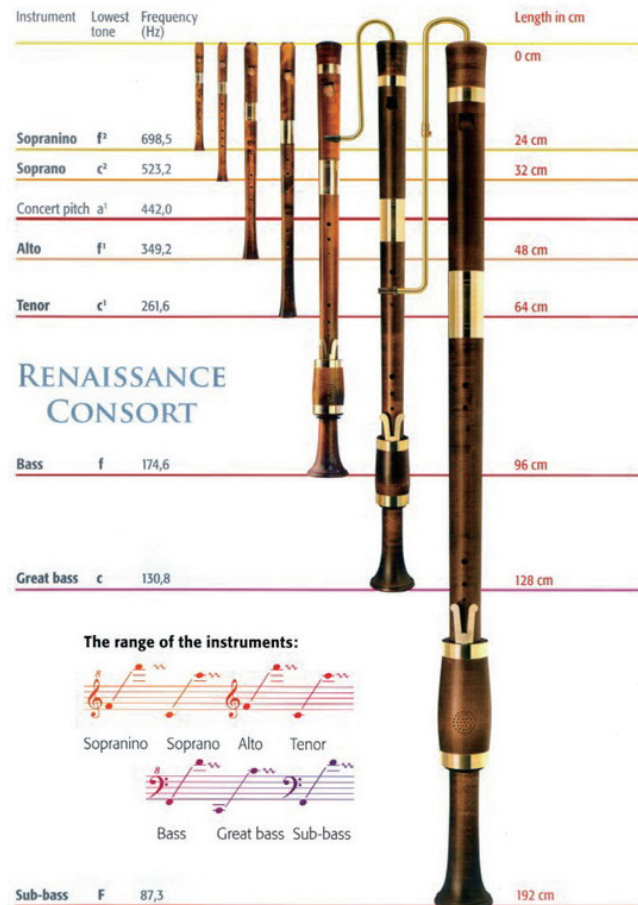
F조 리코더로서 독주로도 사용되나 주로 앙상블 및 합주에서 저역 악기로 사용되며 운지하기 편하도록 키가 달려 있다. 크룩이 달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길이는 약 96cm 전후이다. 오늘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악기가 기역 모양으로 꺾여 있다. 아래 그림은 플라스틱 리코더 패밀리이다.

그레이트베이스 Greatbass 리코더

저역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리코더로서 앙상블 및 합주에서 많이 쓰이는 리코더이다. C조 리코더로 길이는 약 128cm 전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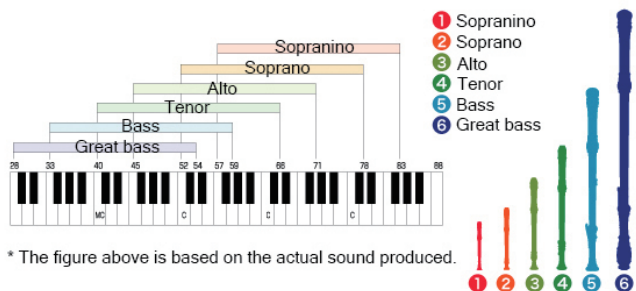
소프라니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 katietraxler.com



리코더의 종류 / 네이버 조이뮤즘 블로그

서브베이스 Subbass 리코더

보다 낮은 저역을 표현하는 F조 리코더로 길이는 2m를 훨씬 넘는 악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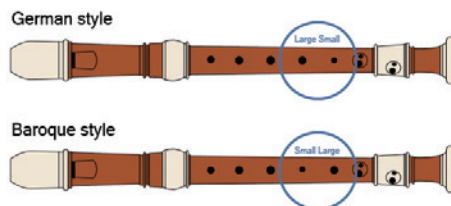


리코더의 종류별 음역대 / yamaha.com

리코더에 관한 뒷이야기

운지방법에 따른 분류

운지방법에 따라 독일식과 바로크식이 있다. 바로크식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쓰였던 운지방법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음정이 가능하나 운지가 어렵다. 반면에 독일식은 음정이 불안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운지가 쉬워 교육용 악기로 널리 쓰인다.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리코더의 위쪽 4번째 구멍이 5번째 구멍보다 크면 독일식이고 작으면 바로크식이다.



독일식과 바로크식 / yamaha.com

www.mtbexam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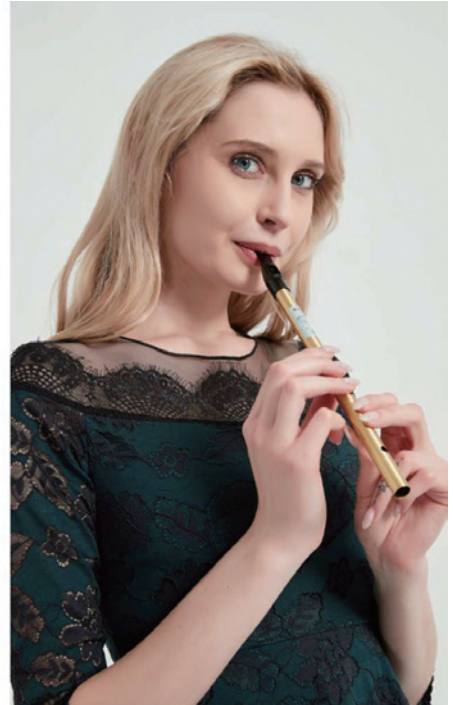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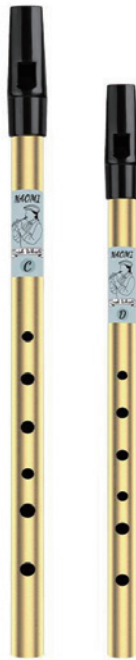
카주Kazoo

‘카주’라는 리코더 비슷한 악기도 있다. 주로 어쿠스틱 기타 가수들이 하모니카와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 악기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연주법도 너무

쉬워서 이 악기를 입에 물고 노래를 허밍으로 흥얼거리면 악기에 붙어 있는 떨림판에 의해 허밍음이 변조되면서 소리가 난다. 외국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아기들 교육용 악기로 많이 사용한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덜 알려진 악기이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윈드악기가 아닐까 한다.



카주 / knightmusic.com



틴 휘슬 / brighttab.com

틴 휘슬Tin Whistle(아이리쉬 휘슬Irish Whistle)

틴 휘슬은 초기에는 값싼 주석 재질로 제작된 악기인데 최근에는 니켈로 도금을 하며 6개의 톤홀을 가지고 있다. 연주도 쉬운 편이며 음색이 금속임에도 날카롭지 않고 목가적이어서 켈틱 음악(Celtic Music)(켈트 문화권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의 나라에서 발생한 음악으로 잔잔한 멜로디에 마치 풍경화 같은 느낌을 주는 민속 음악)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아일랜드에서 크게 유행하여 아이리쉬 휘슬이라고도 부른다.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의 인트로에서 이 악기 음을 들을 수 있으며,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밴드 ‘THE CORRS’의 음악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소지로 / newagestyle.net

오카리나Ocarina

오카리나는 19세기 이탈리아에서 제작되었으며 작은 거위라는 뜻을 지녔다. 이름처럼 귀엽게 생긴 이 악기는 도자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며 리코더처럼 소리내기 쉬운 목관악기이다. NHK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대항하’에서 일본인 연주자 소지로Sojiro가 주제곡을 오카리나로 연주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행했던 곡이다.



물새피리 / jshadv.top



빠꾸기 휘슬 / adams-music.com



디저리두 / mvqtravel.com

새 피리와 빠꾸기 휘슬

새 피리는 도자기로 만들었으며 물을 넣어서 불어야만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나서 물새피리라고도 부른다. 빠꾸기 휘슬은 지공이 1개인데 그것을 열고 막으면서 연주하면 ‘빠꾸’ 소리가 나는데 두 악기 모두 교육용이나 음향효과용으로 사용된다.

디저리두^{Didgeridoo}와 레인 스틱^{Rain Stick}

리코더처럼 일자로 길쭉한 모습인데 전혀 다른 두 악기가 있



레인 스틱 / flaghouse.com

다. 디저리두는 호주의 원주민이 사용하던 것으로 굵은 나뭇가지의 속을 파내서 만든 악기로 입술을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 금관악기이다. 그리고 레인 스틱 또한 기다란 모습의 나무로 만든 악기인데 안에 모래나 작은 알갱이들을 넣어서 마치 비가 오는 듯한 소리를 연출할 수 있는 타악기이다.

대한민국 공군군악대 공연

대한민국 공군군악대 공연에서 ‘왕벌의 비행’을 소프라노 리코더로 연주해서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한 동영상이다. 한예종에서 리코더 전공의 연주자였는데 리코더를 무지 사랑하는 분이라고 한다.

리코더의 음원들



The Real Florence Foster Jenkins on film



My Heart Will Go On - Recorder By Candlelight by Matt Mulholland



텔레만 리코더 소나타 바장조 2번 2악장 라르고



The Royal Wind Music in The Greene Space



Super Mario World - 플라스틱 리코더 패밀리



German vs Baroque recorders?



Flight of the Bumblebee - Barry Manilow Live(카주 연주)



Mary Bergin Tin Whistle



대황하 Sojiro 오카리나 - The Great Yellow River



물새피리 (20초 후)



Cuckoo Bird Call Whistle



Tarzanloca - high dimension (director's cut) didgeridoo solo



Rain Stick



왕벌의 비행 & 벤토벤 바이올린 리코더 연주 / 대한민국 공군군악대 공연 중

이것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목관악기군에서 여섯 번째 주자 리코더를 마치게 되었다. 다음에는 금관악기의 첫 번째 주자로 위풍당당한 악기 트럼펫이 연재된다. 🎺